

# 끝이 없는 중생의 탐심

##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30)

야사의 음행

부처님께서 5백 명의 비구들과 함께 발가죽에 이르러 비바리성에 머무르셨다. 그 해 그곳은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거의 결식을 하여도 음식을 구할 수 없었다. 성안에 살던 야사라는 장자도 출가하여 결식을 하였으나 음식을 얻기가 어려웠다. 그는 어느 날 속가를 찾아 음식을 구걸했다. 오랜 만에 아들을 만난 어머니는 그에게 말했다.

“네가 아주 큰 고생을 하는구나. 우리 집에는 재물이 적지 않으니 너 필요한 대로 쓰려무나. 그리고 너의 아내가 아직 여기에 있으니 함께 생활하면서 보시고 삼보에 공양하거라.”

하지만 아들 야사는 사문으로서 어머니의 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네가 사문으로서의 길을 가려하나 집안의 후사는 잇게 하시오. 그래야만 내가 죽은 뒤에 재물이 관청에 속하지 않게 될 수 있으니, 오직 그것만이 소원이야.”

야사는 대답했다. “대를 이을 자손을 남기려는 뜻이라면, 어머니의 청을 따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얼른 들어가서 신부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야사가 그의 아내를 만나고 떠난 뒤 야사의 부인은 바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 뒤에 마침내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속중(續種)이라 했다. 세간 사람들이 모두 그 일에 대해 수군거리고 놀렸다. 야사는 너무 부끄러워 사리불에게 말했다. 사리불은 야사와 함께 부처님을 뵈고 이 일을 말씀드렸다.

“야사 비구야, 사문들 중에서 아직 이런 일은 없었다.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큰 죄의 문을 열었구나.” 야사의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께서 야사의 전생에 대해 말씀하셨다.

과거 세상에 광음천(光音天)이 생기고 이 세계가 처음 이루어질 때의 일이었다. 어떤 사람이 탐욕을 내어 이곳 들판의 곡식을 마음대로 가져다 먹어버렸다. 그러자 다른 중생들도 차츰차츰 그를 따라하게 되었고,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이 습이 되어 몸은 갈수록 무거워졌다. 이렇게 욕심을 일으킴으로 인하여 점차 신통력은 몰라가고 광명도 사라졌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이때부터 해와 달이 생겨난 것이니, 그때의 탐욕스러운 중생이 바로 지금의 야사였다. 그 어머니도 비단 오늘날에 만 그 아들을 껴서 속인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이미 그런 일을 저질렀다.

가시국의 마라내성의 왕 대명칭은 보시와 계를 지니고 도(道)로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의 첫째 부인이 별자리를 자세히 살피자니 금빛 사슴 한 마리가 남쪽으로부터 허공을 가르면서 북쪽으로 가는 것이 보였다. 부인은 생각했다.

“저 가족을 벗겨가지고 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부인은 사슴을 갖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여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왕이 이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부인의 얼굴에 근심이 있어보였다. 이

유를 물으니 부인이 대답했다.

“근심이라기보다 그저 내가 따로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금빛 사슴을 보았는데, 그 가족을 가져다 요를 만들고 싶는데 그 사슴을 손에 넣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신하와 하인들에게 말했다.

“누가 그것을 구해 올 수 있겠느냐?”

나서는 자가 없자 모든 사냥꾼을 모았다.

“어서 빨리 그 사슴을 찾아오너라.” 사냥꾼들은 모두 말했다.

“저희는 이제껏 그런 이름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어디 가서 구한단 말씀입니까?” 왕이 노하여 말했다.

“사슴을 잡아오겠느냐? 감옥에 갇하겠느냐?”

게 말했다.

“그 사슴은 그물이나 활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냥꾼이 말을 전해 들은 부인이 사냥꾼에게 말했다.

“당신은 꿀을 가지고 가서 그 나뭇잎에 바르시오. 나무 위에 있는 잎에서부터 차차 아래로 내려오며 꿀을 바르며 아래 그물을 쳐 놓은 곳까지 내려오면 됩니다.”

사냥꾼은 부인이 시키는 대로 했다. 잠시 후 사슴은 꿀 냄새를 찾아 잎을 뜯어먹으면서 나무 아래로 내려왔다. 결국 사슴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다. 선인이 이 광경을 보고 말했다.

“쫓쫓, 무슨 저런 가혹한 재앙을 다 당하는가?”



삽화 · 강병호

그러자 사냥꾼 중에 내사라는 사냥꾼이 나서며 말했다.

“그 사슴을 보았다거나 소문이라도 들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인이 대답했다.

“내가 누각 위에서 보았는데, 남쪽으로부터 허공을 가르면서 북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소.”

야사는 사슴이 먹이를 먹는 곳으로 가서 사슴을 찾을 생각으로 활과 화살을 가지고 북쪽으로 가다가 설산에 닿았다.

그 산에는 선인이 살고 있었다.

“여기서 사신 지는 오래되었습니까?”

“벌써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뭐 기이한 일들은 보지 못했습니까?”

“이 산의 남쪽에 니구울이라는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 나무에는 언제나 금빛의 큰 사사슴이 날아와서 그 위에 앉아 니구울 잎을 먹곤 합니다.”

사냥꾼은 선인에게 부탁하여 그 나무 아래로 가 보았다. 잠시 후에 사슴이 나타났는데, 마치 큰 기러기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것 같았다. 사슴은 나무 위에 잠시 머물며 잎을 먹고는 배가 부르자 다시 알아가 버렸다. 사냥꾼이 돌아와 왕에

비록 허공을 날 수 있다고 해도 악인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선인은 계승으로 말했다.

“이 세상 커다란 악 중에서 / 냄새와 맛보다 더한 게 없다. / 범부인 사람에게 속임수를 쓰고 / 숲과 들판의 짐승들을 속이거나 / 바람에 불려오는 냄새와 맛을 탐내고 집착하다가 / 이러한 괴로움의 환란을 받는구나.”

부인이 사슴을 보고는 사슴을 끌어안았다. 부인이 이렇게 물든 마음과 무거운 정으로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사슴의 금빛은 그만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왕이 부인에게 말했다.

“이 사슴의 금빛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오?”

“이놈은 이제 볼 것이 없는 놈이니 버리세요.”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금빛의 사슴은 바로 야사이며, 부인은 지금의 야사 어머니이다. 그렇게 모든 괴로움을 받았으면 서로 지금까지 탐내고 집착하고 있다.” (《마하승기율》 제1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행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㉔



## 전법의 기쁨

### 금강경 사경 이야기

나는 올해로 칠순이다. 그동안 부처님의 품속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으며 살아왔다. 무엇보다 보답을 할 수 있기가 고맙다. 나는 20년 전부터 금강경 한글 사경 책을 수 만권 법보시를 해왔다. 하지만 사경본을 낸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이번엔 이 사경(寫經)본을 내어 보시하기로 했다. 누구나 따라 쓰면서 좀 더 가까이 금강경을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시작하여 글을 썼다. 한 자 한 자 쓸 때 마다 정성은 물론이고 다른 누군가가 더 큰 신심으로 부처님께 귀의하길 바랐다. 이렇게 하여 천권으로 법보시 하려 했던 일이 동장자가 늘어나면서 4000권을 인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각자의 인연 따라 보시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인 낙산사 흥련암 강화 보문사 남해 보리암에도 부쳐드리고 조계사 봉은사에도 보냈다. 각처에서 많은 신도님들로부터 성원의 전화를 받았다. 우선 불자로서 큰 보람을 느꼈다. 나의 가족들에게도 보냈다. 어제 카카오 톡에 사진이 올라왔다. 10살 된 손주와 5살 된 손주가 사경하는 모습이였다. 나는 너무나 고맙고 기뻐하여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이웃집 아이들도 따라 쓰고 있다며 자랑들이다.

산 스님은 사진을 찍고 남여 두 사람이 함께 부는 섹스폰 연주에 시작되었다. 관객은 공양주와 법당 일을 보는 법당보살님 안에서 할머니를 시중드는 보살님 그리고 몇몇 보살과 나카지 10명 정도이고 장소는 작은 거실이었다. 음악이 흐르고 그동안 간헐 생활을 하던 보살들이 차례로 연주에 맞춰 노래 부르며 춤도 추었다. 구슬을 맞은 할머니도 손뼉을 치며 흥겨워했다. 참 보기 좋았다. 이렇게 부모의 인연만이 아닌 스님과 노 보살님 사이에 흐르는 정은 그냥 정이 아닌 효심(孝心)이었다. 나도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는 방 한 칸에 항상 모셔져 있는 고암 스님, 일타 스님, 법정 스님의 영정 앞에 다시금 고개 숙여 예경 드리며 생전에 입었던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리고 스님들의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 경을 읽고 경을 쓴다. 이제 철이 들만하니 그 어른들은 아무도 계시지 않다. 스님들의 가르침과 베풀어주시는 사랑, 모두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금 돌려드리는 것으로서 보답이 되길 바라며 그 은혜 잊지 않으려 한다. 오늘 삼산 스님처럼 후회 없도록 그때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참회의 마음이 가슴 가득하다. 마침 창밖에는 작은 보슬비가 내려 푸른 잔디밭을 적시고 있다. 돌아오면서 작지만 큰 뜻이 담긴 연주회였다고 박수를 보낸다. 위로는 어른이고 아래로는 늘 굶은 일 도맡아 하는 이 절집 식구들과 늘 마음 쓰시는 스님이 고맙게 생각되었다.

### 주위에 사경 권하며 전법

### 철드니 어른들 모두 저세상에

이렇게 한사락씩 사경으로 전법 되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올해의 내 서원과 발원은 헛되지 않을 것 같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다. “어떤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아승지 세계에 철보를 가득 쌓아 보시하더라도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 마음을 낸 이가 있어 이 경(經)과 내 글귀로 된 한 계승(覺頌)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 일러주면 그 복이 보시한 복덕보다 나으리라. 무슨 까닭인가! 읽고 있는 모든 법은 꿀꺽 갈아서 그림자와 꼭두각시 물거품이라 풀꺾어 이슬이요 번개 같으니 언제나 변할 없는 진리 보게나.”

### 효도

홍법사에서 전화가 왔다. 저녁에 섹스폰 연주회가 있으니 5시까지 오면 좋겠다고 했다. 오랜만에 보는 연주회라 기쁜 마음으로 시간에 맞춰 연주회에 갔다. 많은 사람들이 보살 마음을 생각되어 나는 미리 차를 길옆에 세웠다. 그런데 시간이 되었는데도 도량은 너무도 조용했다. 관계자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내가 생각했던 연주회가 아니었다. 식구들끼리 모이는 할머니 구순 잔치란다. 얼마 전 우연히 알게 된 신도중에 섹스폰을 연주하는 신도가 있어서 한번 와서 해 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마침 축하할 자리여서 초빙했다는 것이다. 주지 심

### 법문을 들으며

월호 스님이 홍법사에서 법문을 하시는 날이었다. 도반과 함께 차를 타고 갔다. 스님은 우리 시대의 젊은 불자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누구보다 포교에 힘쓰고 계신 스님이다. 오늘 함께 간 도반의 손자는 스님의 유발 상좌다. 법당엔 700여 명이 넘는 많은 대중이 자리를 매웠다. 날씨가 무척 더웠지만 누구 한사람도 불평 없이 질서 있게 앉아 스님의 법문을 기다렸다. 스님이 등단하시자 대중은 큰 박수로 스님을 맞았다.

스님의 법문은 아주 쉽고 편안했다. ‘불교’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불교의 진수를 일러주었다. 우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사용하지 말아야 될 화(성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화를 억지로 참으면 병이되고 터뜨리면 업(業)이 되며 관찰하면 놓아버리게 되니 사라지고 만다. 이것이 수행이다.” 아마도 이런 법문을 들은 모든 불자들은 쉽게 하지 지지 않을 것 같다. 법을 닦고 도를 닦음은 욕망의 줄임이다. 몸이 가진 모든 욕망을 분리해서 내 마음으로부터 내보낸다면 본래의 내 마음만 남아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다는 것과 가진 만큼 나누고 아는 만큼 전하라는 전법(傳法)의 가치를 실하는 법문이었다. 귀한 설법을 들은 대중들의 표정엔 환희심이 가득했다. 법을 전하고 듣는 일이야말로 불자로서 행복하고 또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부산 꽃모임회장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주요은 헌불삼! 02)2004-8216

능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기반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셔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어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불교인이면 누구나 기iban

나만의 청신세계 기iban

기iban

합선 신경과 안과 진찰을 통한 나의 안질환을 기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기iban

성불할때까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동반자 기iban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3×6식물성사군자

3×6사군자 (7.4 × 14.5cm)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핑크/옐로우/실구/그린/개나리 (7.4 × 29cm)

나비양초 - 화이트/핑크/옐로우/실구/그린/개나리(7.4 × 29cm)

한복밀납양초 - 4호/3호/2호/1호/밀대전사자/둔대전사자/원기동전사자

수공예밀납양초 - 밀납/약속아광연꽃양초/약속1호예술연꽃양초/약속 연꽃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묘읍 문형리 35-16

우창산업 SHC 심환종합양초 능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